

기록학 실천주의(Archival Activism)의 과제와 전망*

월가점령운동 기록화 사례를 중심으로

이 현 정**

1. 머리말
2. 기록학 실천주의의 개념과 발전
 - 1) 기록학 실천주의의 개념
 - 2) 기록학 실천주의의 기원과 발전
3. 월가점령운동과 기록학 실천주의
 - 1) 월가점령운동의 전개와 특성
 - 2) 월가점령운동의 기록화 활동
4. 월가점령운동을 통해 본 기록학 실천주의의 함의
5. 맺음말

* 이 논문은 제5회 전국기록인대회 발표문 「미국 월가점령운동과 활동가 아키비스트」(2013)와 제6회 전국기록인대회 발표문 「사회참여운동의 과제와 전망」(2014)을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 강사. 주요 논저 : 「수집형 기록관의 전자제어시스템 분석」 『기록학연구』 13, 한국기록학회, 2006; 「미국 월가점령운동과 활동가 아키비스트」 『제5회 전국기록인대회 발표자료집』, 2013; 「Archivist for change: 사회참여운동의 과제와 전망」 『제6회 전국기록인대회 발표자료집』, 2014.

▪투고일 : 2014년 9월 29일 ▪최초심사일 : 2014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4년 10월 18일.

[국문초록]

최근 기록학계에는 배제된 소수의 기록화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공동체, 일상, 정치사회적 운동, 인권 등에 대한 다양한 기록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록학 실천주의는 근래 들어 새로이 형성되었다기보다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학문적·사회적 영향에 따라 변모되어왔다. 최근의 기록학 실천주의는 디지털 환경과 맞물려 기관, 지역을 넘어서 전세계적, 주류/비주류를 아우르는 모양새로 다방면에서 진행 중이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4.16참사는 우리나라 기록공동체에게도 여러 과제를 안겨주었다. 증거, 치유의 기록에 대한 성찰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 글은 월가점령운동의 기록화 사례를 통해 동시대 기록화에 대한 과제에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록학 실천주의의 개념, 그 기원과 의미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월가점령운동의 기록화 활동 사례를 통해 기록학 실천주의를 수행하는 기록전문직의 역할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한다.

주제어 : 기록학 실천주의, 사회정의, 실천적 아키비스트, 월가점령운동

1. 머리말

최근 들어 기록학 실천주의(Archival Activism, 이하 아키비즘(Archivism))가 구미 기록학계 화두가 되고 있다. 사회정의의 기록학적 실천을 목표로 하는 아키비즘은 1960년대 후반부터 기록전문직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회자되고 있는 행위이자 신조이며 학문적, 사회적 영향에 따라

기록학 내부의 요구와 맞물려 의미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의 아키비즘은 아나키비스트(Anarchivist)¹⁾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실천주의를 더욱 극대화하고 있다.

아키비즘의 본령은 사회 다방면의 활동을 다원화하여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상, 공동체, 마을아카이빙 등 여러 방면의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원리에서 방법, 기술적 연구까지 그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²⁾이다. 정치사회운동과 관련된 아키비즘에 대한 연구³⁾도 4.16참사 이후 실천적 활동과 더불어 학문적 과제로 현재 주목을 받고 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4.16참사는 우리나라 기록학계에 여러 과제를 안겨준다. 참사의 진실과 진상을 규명해줄 공공영역의 기록을 어떻게 처분 조치해야 해야 하는지, 진실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및 민간영역의 활동상과 애도와 성찰, 치유의 기록으로서 추모기록의 아카이빙에

-
- 1) 아나키비스트란 무정부주의를 뜻하는 Anarchism과 Archivist의 합성어로 주로 소속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시각예술 관련 아티스트를 지칭하는 단어로 인터넷상에 사용되고 있으나, 기록학 실천주의와 관련해서는 월가점령운동의 주요 활동가였던 제레미 볼드(Jeremy Bold)가 주창한 개념이다.
 - 2) 2014년 제6회 기록인대회 첫날(10월17일) 메인 발표의 주제 외에도 둘째날 발표의 세월호아카이빙과 오픈소스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이 이를 반증한다.
 - 3) SSK 산업변동과 로컬리티 연구단, 기억, 공동체, 치유의 아카이브, 세미나, 2014; 김익한, 「고잔동공동체와 기억저장소」,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HK문명연구사업단 심포지움, 2014 등과 제6회 전국기록인대회 첫날 발표인 설문원, 「사회갈등 기록화의 과제-밀양 송전탑건설갈등을 중심으로」 및 심성보, 「사회적 기록화를 위한 민관협력방안」, 둘째날 세월호아카이빙과 관련된 발표들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사회정의와 아키비즘에 관련된 논문 경향은 Wendy M. Duff, Andrew Flinn, Karen Emily Suurtamm, David A. Wallace, "Social justice impact of archive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Archival Science*, Vol.13, 2013, p.318을 참조할 수 있으며, 70년대 Activist Archivist 논의에 관해서는 Mark Greene, "A Critique of Social Justice as an Archival Imperative: What Is It We're Doing That's All That Important?", *American Archivist*, Vol.73, p.328 각주 3-5번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기록공동체가 어떻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동시대 사회적 모순을 외면하지 않고 기록화해야 할 사명과 관련하여 기록전문직에게 크나큰 과제를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 글은 2011년 미국에서 발생하여 전세계적 반향을 일으켰던 월가 점령운동의 기록화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 기록학계가 처해있는 동시대 기록화에 대한 과제에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아키비즘의 개념, 기원과 의미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월가점령운동의 기록화 활동 사례를 통해 아키비즘을 수행하는 기록전문직의 역할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한다. 현재 우리는 기록전문직으로서 사회운동에 참여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할 자의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일 수도 있다. 이러한 자의식이 기록학 실천주의를 개인적으로나 기록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기록학 실천주의의 개념과 발전

1) 기록학 실천주의 개념

아키비즘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 이후 기록학 논저의 증가로 반영되고 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2013년까지 4개의 주요 기록학 저널(American Archivist, Archival Science, Archivaria,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에 Archival Activism, Social Justice, Activist Archivist에 관한 주제를 포함한 논저가 42편이 확인된다고 하였다. 이 가운데 88%가 2000년대 이후 발표된 것들이고, 절반 가까운 논문이 2010년 이후에 발표⁴⁾되었다고 한다. 또한 2014년 『Archival Science』의

특별주제가 “Archiving Activism and Activist Archiving”으로 선정⁵⁾되는가 하면, 월가점령사건 이후 아키비즘⁶⁾이나 급진적 아카이브에 대한 심포지움⁷⁾도 개최되는 등 기록학계에 개별 주제로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 되었다.

그러나 기록학 실천주의에 대한 개념 정의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기록학 실천주의와 같이 사용되는 기록학에서의 사회정의, 실천적 아키비스트 역시 단어의 빈번한 사용과는 별개로 뚜렷하게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기록학적 실천 자체에 대해 학자마다 포괄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좁게는 보존소에 소장되는 수집물의 격차를 줄이는 행동에서부터 사회·정치적 문제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가로서의 면모까지를 포함하는 개념까지, 전문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러한 인식 차이가 개념 정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학의 전문성을 사회정의의 실천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공통의 개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플린(A. Flinn)은 “사회의 다양성을 아카이브가 반영한다는 것을 받아들여 ‘외부적 활동’과 확장서비스(outreach)가 맞물려 조성되는 가운데, 기록전문직 임무에 대한 활동적이고 실천주의적 접근방식으로 사회변화를 가능하게 하고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구태에 도전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⁸⁾이라

4) Wendy M. Duff, Andrew Flinn, Karen Emily Suurtamm, David A. Wallace, “Social justice impact of archive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p.318.

5) [http://www.springer.com/cda/content/document/cda_downloaddocument/Cfp_Archiving+Activism+and+Activist+Archiving.pdf?SGWID=0-0-45-1415240-p356111461] 2014.09.14 접근.

6) Archivists Round Table of Metropolitan New York and the New School Archives and Special Collections, Archives and Activism Symposium, October 12, 2012.

7) [<http://www.radicalarchives.net/ra/>] 2014.09.10 접근.

8) Andrew Flinn, “Archival Activism: Independent and Community-led Archives, Radical Public History and the Heritage Profession”, *InterActions : UCLA Journal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Studies*, Vol,7, 2011. p.1.

고 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와키모토(D. Wakimoto)는 “아카이브와 더 넓은 사회 모두에서 좀더 포괄적이고 공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정과 차별에 도전하면서 사용하는 기록학적 실무”로 정의⁹⁾하였다.

사회정의는 사회적 권력과 부의 분배에 관한 것이다. 월라스(D. A. Wallace) 등은 사회정의에 대한 기록학적 접근에 대해 “체계적 불평등을 인식하고 배제, 소외와 지배구조에 도전하고 변경하기 위해 지적·물리적으로 자원을 사용하는 행위¹⁰⁾”라 정의하였으며, 지머슨(R. Jimerson)은 “전문직으로서 사회정의와 다양성, 열린 정치, 설명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해 아카이브의 권력을 사용하는 것”¹¹⁾을 촉구했다.

실천적 아키비스트에 대한 개념도 그것을 포괄하는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그린(M. Greene)은 “단지 정치, 경제, 사회 또는 지적 엘리트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목소리를 재현하기 위해 다양성을 포괄하는 사람”이라 정의¹²⁾하였다. 이 정의는 기록관리 프로세스 내에 편향된 기록선별을 지향하고 소외된 사람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해리스(V. Harris)는 “공정한 보관자 아닌 기억의 활동가로서 억압적 시스템에 저항하는 사람”¹³⁾이라고 정의하였다. 그가 말하는 억압적 시스템은 사회문제 전반에 걸쳐 정의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공동체 생성에 대한 구조지식과 원래의 맥락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 활동하는 기록전문직

9) Diana Wakimoto, “Archivist as Activist: lessons from three queer community Archives in California”, *Archival Science*, Vol.13, 2013, p.295.

10) Wendy M. Duff, Andrew Flinn, Karen Emily Suurtamm, David A. Wallace, “Social justice impact of archive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p.329.

11) Randall C. Jimerson, “Archives for All: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nd Social Justice”, *American Archivist*, Vol.70, p.256.

12) Mark Greene, “A Critique of Social Justice as an Archival Imperative: What Is It We’re Doing That’s All That Important?”, p.303.

13) Verne Harris, “Jacques Derrida meets Nelson Mandela: Archival ethics at the endgame” *Archival Science*, Vol.11, 2011, p.114.

을 일컫기도 한다. 이것은 수집 대상물로서 공동체의 기록에 접근하는 방식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고 다원주의에 입각한 공동체 자체 아카이브의 구축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세 개념은 모두 사회구조 내의 차이, 소외, 권력의 사용에 대해 공평을 추구하는 바, 이를 위해 아카이브의 전문성을 실천주의적으로 접근하여 사회변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신조로서 아키비즘이 지향하는 목적으로서 사회정의의 실현과 그것의 행위자가 실천적 아키비스트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키비즘과 사회정의, 실천적 아키비스트는 같은 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다.

2) 기록학 실천주의의 기원과 발전

아키비즘의 역사는 1960년대 후반¹⁴⁾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1960년대부터 고양되기 시작했던 흑인민권운동, 반전평화운동,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강조한 신사회사 등 연구경향의 변동 등은 다른 학문영역과 마찬가지로 기록학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역사학자 Zangrando는 “1960년대 정치운동이 아키비스트와 사서들로 하여금 시민권리에 관한 매뉴스크립트를 확인, 수집하고 목록화하고자 하는 새로운 경향을 낳았다”¹⁵⁾고 하였다.

아키비즘은 SAA를 중심으로 신진 아키비스트들¹⁶⁾에 의해 협회 내의

14) 1977년 『Georgia Archive』(vol.5 No.1)는 특집으로 ‘The Activist Archivist : A Reevaluation’를 다루었다. 이를 설명하는 서문에 “아키비스트에게 실천주의가 논쟁이 된지 10여년이 흘렀다”는 문장을 볼 수 있다.

15) [<http://michaelpeters.blogspot.kr/2005/03/paper-archivists-as-postmodern-shapers.html>] 2014.09.10 접근.

16) 대표적 인물로는 Robert Waner, Herbert Finch, Mary Lynn McCree, Philip Mason, F. Gerald Ham 등을 들 수 있다. Patrick M. Quinn, “Archivist and Historians : The Times They are a changing”, *Midwestern Archivist* Vol.2, 1977, p.8. 이들 중 일부는 이후 70년대 위원회 분과위원장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였다.

엘리트주의와 비민주적 조직 운영, 수집의 다양성(흑인, 소수민족, 여성, 노동자의 기록)의 필요, 베트남 전쟁에 대한 국가 공적자금 사용의 비판¹⁷⁾ 등 주로 60년대 사회문제의 축소판으로서 SAA의 개혁과 수집문제에 대한 논의로 시작되었다.

흔히 기록학 실천주의의 기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진(Howard Zinn)의 연설¹⁸⁾은 이러한 내부의 자각과 맞물려 이루어진 것이다. 300여명이 운집한 1970년 SAA 연례회의의 ‘아키비스트와 신좌파’ 세션에서 진은 “ 지배층 중심의 기록에서 보통사람들의 기록을 모아 역사를 새롭게 쓰는 것을 제안하고 아키비스트는 전문가의 중립성이란 거짓에서 벗어나 현재 우리 사회가 부정하는 평화·평등·정의라는 인간적 가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¹⁹⁾하였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SAA 내부의 신진 아키비스트 일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본격적으로 아키비즘이 시작되었다고 보여진다.

특히 1971년 SAA 샌프란시스코 연례회의에서는 개혁을 위한 비공식 모임으로서 ACT(Archivist for Action)가 창설되었다. 이들은 1982년까지 꾸준히 뉴스레터를 발간하며 소수자에 대한 문서화, SAA 내부의 차별 철폐,²⁰⁾ NARS 독립, 교육프로그램 개선, 아카이브 접근성의 향상 등 다

17) Quinn, “Archivist and Historians : The Times They are a changing”, p.8

18) SAA에서 Zinn이 발표한 연설은 이후 오랫동안 미간행되었다. 때문에 그의 연설 제목이 인용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다. “Activist Archivist”나 혹은 세션 제목인 “The Archivist and New Left”라고 인용되기도 한다. Zinn 연설의 패널이었던 Quinn의 논문에 의하면, 그의 연설 제목은 “The American Archivist and Radical Reform”이었고, 1977년 『Midwestern Archivist』에 “Secrecy, Archives, and The Public Interest”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Zinn에 의하면 이 논문의 축소본전은 1971년 보스턴대학 저널에 실렸다고 한다.

19) 하워드 진, 『하워드 진, 역사의 힘』, 이재원 역, 위즈덤하우스, 2009, 213-214쪽.

20) 1966년 미국여성연맹의 창설 등 여성의 권리와 이익을 추구하는 페미니즘운동의 영향이 기록학계 내부에도 미치기 시작하였다. 1965년 당시 SAA 성비는 남자 83.3%, 여성 16.7%였으며, 전문직 내 소수에 대한 배려로서 70년대위원회나 ACT 활동은 여성위원회의 조직결성 및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방면의 개혁을 촉구²¹⁾하였다. ACT의 활동은 1970년 구성된 ‘70년대 위원회’ 보고서를 협회 내에서 채택되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70년대 위원회 보고서의 목적은 현 협회 구조를 분석하여 향후 10년간의 활동을 모색하는 것과 협회가 더 민주적으로 책임성있게 회원과의 유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²²⁾이었다.

1972년 발표된 보고서의 방향은 전문성의 확립과 전문직의 사회적 역할과 관심에 의거한 수집의 다양화 등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보고서는 매뉴스크립트 수집에 엘리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음²³⁾을 결의하였다. 이것은 SAA가 수집활동의 다양화를 촉구한 최초의 공식 문서로 보여진다. 이러한 배경 하에 70년대 위원회에서 활약했던 햄(Ham)이 1974년 SAA 협회장으로 취임하여 ‘경계에 선 기록관리’(The Archival Edge)라는 연설을 통해 ‘능동적 아키비스트(Active Archivist)’의 역할을 천명하게 된 것이다.

사회 전체의 문서화 과정에 주목하도록 한 햄의 촉구는 1980년대 다큐멘테이션 전략으로 실행되었다. 아카이브가 사회에 대한 기록을 포괄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이러한 전략은 90년대 초반까지 당대 사회가 기억해야 할 대상을 선정하고 단일기관 차원이 아닌 다기관 협력적 수집을 통해 다양한 기록을 수집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때까지의 실천주의는 정치적 실현을 목표로 한다가 보다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보다 완전한 기록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 수

21) UWM Library, UWM Manuscripts Collection 172 SAA Records/8.Unit/5.Other Group, 1971-1997/ 200-08-05 ACT(1971-1982) Newsletter.

22) Philip P. Mason,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in the Seventies Report of the Committee for the 1970’s” *American Archivist* Vol.35, 1972, p.193. 위원회는 8개의 분과로 활동하며 각각 권고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ACT 및 70년대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것은 다음 기회에 더 소개하고자 한다.

23) Philip P. Mason, 같은 논문, p.205.

집, 평가 프로세스의 다양성 구축이 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학문영역과 마찬가지로 기록학 역시 90년대 들어서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근대 기록학의 보편타당한 가치들이 상대화 관점에서 재해석되면서 침묵을 통해 배제된 사람이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살피는 실천적 자각 속에, 경계 밖의 다른 것을 수용²⁴⁾할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된다. 따라서 정치, 사회적으로 배제된 소수의 대안적 기록화를 지향하고 다양한 소서사의 공존을 모색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것은 이전 아키비즘이 제시한 다양한 기록의 총체적 균형성을 추구하는 것과는 다르다. Shilton과 Srinivasan은 “지금까지 주류 수집기관들이 구축한 것은 ‘공동체의 아카이브’라기 보다 ‘공동체에 관한 아카이브’였다”²⁵⁾고 표현하고 있다. ‘다양성에 기초한 타자의 인식’은 단지 기록 수집소재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영역의 타자성을 인식하고 한 사회를 구성하는 아카이브로 인식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반성에서 시작된 것이다. 기록생산의 주체가 자신의 역사를 온전히 획득하여 그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적어도 공동체의 직접 참여가 보장되는 전략의 모색은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받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정의의 실현은 1990년 후반부터 아키비즘의 목적으로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었다. 해리스는 “정치가 기록이며 아카이브는 매우 정치적인 가능성이 있다 ... 정치권력의 행사는 정보의 제어에 달려있으며, 아키비스트는 ‘정치가 불가피하다.’”²⁶⁾고 주장한다. 사회정의

24) 이승역, 「경계밖의 수용 : 보존기록학과 포스트모더니즘」, 『기록학연구』 38, 2013, 217쪽.

25) Katie Shilton and Ramesh Srinivasan, “Participatory Appraisal and Arrangement for Multicultural Archival Collections”, *Achivaria* Vol.63, 2007, p.89.

26) Mark Greene, “A Critique of Social Justice as an Archival Imperative: What Is It We’re Doing That’s All That Important?”, p.304.

실현은 기본적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치에 대한 해석은 매우 민감해지고 있다. 이러한 참여가 객관성, 중립성에 기초한 전문직의 윤리에 벗어난다는 우려에 대해 쿡(T. Cook)은 “전문가의 중립성이라는 미명 하에 방관하기보다 아카이브가 정의를 위해 사회적 개입을 해야 한다는 참여라는 관점에 아키비스트의 업무는 정치적²⁷⁾이다”라고 하였다.

현재 아키비즘을 실천하는 조직들에게 배제된 소수의 기록화와 사회정의 실천은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자신들을 활동가이자 아키비스트라고 정의한다. 사회정의에의 ‘참여’는 이러한 구분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으며 그들 스스로 이러한 구분을 무너뜨리고자 노력²⁸⁾한다. 특히 디지털 환경과 결합하여 아키비스트는 기관, 지역을 넘어 전세계적 정치 의제, 공동체 형성, 주류/비주류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대안적 기록화를 넘어 ‘기억의 정치’에 목적의식적 활동²⁹⁾을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0년대 중반 이후의 아키비즘은 사회정의 실천에 직접 참여를 통해 대항기억의 형성이라는 기록화의 지향을 넘어 담론을 주도하고자 하는 활동까지를 포함하는 적극성을 띄고 있으며, 권력분산적인(empowered) 아카이브 전략을 포함한 참여아카이빙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7) Terry Cook, “Archival Music: Verne Harris and the Cracks of Memory” in Verne Harris, *Archives and Justice: A South African Perspective*,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007, xiii-xiv.

28) Sian Evans, Anna Pericci, Amy Roberts, “Why Archive? and Other Important Questions Asked by Occupy Wall Street”, edit by Melissa Morrone, *Informed Agitation*, Library Juice Press Sacramento, CA, 2014, p.299.

29) 이현정, 「Archivist for change:사회참여운동의 과제와 전망」 발표문에 이러한 단체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3. 월가점령운동과 기록학 실천주의

1) 월가점령운동의 전개와 특성

월가점령운동(Occupy Wall Street Movement 이하 OWS운동)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상 최대의 빈부격차 및 청년실업률 증가에 대한 항의로 미국에서 시작된 시위³⁰⁾이다. 2011년 9월 17일 ‘월가를 점령하라’는 구호로 뉴욕 맨하탄 중심가 주코티 공원의 점거를 기점으로 미국 전역 및 전세계로 과급되었다. 실제 미국 국세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상위 소득계층 1%가 1993년부터 2008년 사이 미국에서 생성된 소득의 52%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월가 시위에 참여한 시위대들의 직접적인 불만도 바로 이러한 빈부 격차이며, 1% 부자와 대비해 소외되는 99%를 시위대가 대변한다는 ‘우리는 99%이다’가 이들의 주요 구호이다.

리더없는 비폭력 사회 변화(leaderless non-violent social change)를 지향하는 월가점령운동은 2011년 봄에 발생한 ‘아랍의 봄’, 5월 스페인 광장점거운동(Take the Square)³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OWS운동은 2011년 10월 15일 미국 600여 개 지역을 포함한 전세계

30) 미국에서 시작된 시위지만 그 시작은 캐나다 밴쿠버에 본부를 둔 비영리 시민운동단체인 애드버스터재단(Adbusters Foundation)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애드버스터는 7월13일 전세계 시민이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금융위기와 점증하는 빈부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는 금융사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항의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평화적인 시위 제안을 블로그 및 SNS에 게재하였고, 9월17일 1000여명의 시위대가 세계 금융의 상징인 맨하탄의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마침내 전세계적으로 전파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31) 즉 마드리드 중심부인 푸에스타 델 솔 광장에서 정치권력과 자본에 대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저항의 새로운 방식으로 비폭력적,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광장캠핑운동을 선보였다.

82개국 951개 도시에서 금융자본 반대시위가 개최됨으로써 네트워크운동의 새지평을 열었다. 그러나 11월 15일 경찰에 의해 주코티 공원 인파가 해산되고 30일 LA 등에 남아있던 시위대가 해산되면서 73일만에 사실상 대규모 점령운동은 막을 내렸다. 그 이후에도 소규모 점거와 온라인 활동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운동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원적 물음을 바탕으로 소득양극화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확산시켰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³²⁾

OWS운동은 최근 운동의 주요경향인 네트워크 사회운동의 전형 즉 디지털 미디어를 매개로한 저항운동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사회운동에 커다란 전환점을 제공한다. 디지털미디어는 적은 비용으로 정보를 폭넓게 확산, 비교적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대중들이 획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안 미디어의 창출을 가능하게 했으며, 지리적 제약을 초월하여 흩어진 수많은 개인들을 한데 묶어 집단 행동에 동참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인터넷의 개방성 및 쌍방향성은 활동가와 시민들간의 상호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운동에 대한 유대감 형성을 용이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집단정체성 구축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³³⁾ 때문에, 전통적 사회운동의 중앙집중적 지도력 모델에서 벗어나 분산적이고 무정형적인 네트워크 사회운동 모델로 변화되면

32) OWS운동은 반자본주의와 금융패권의 타도라는 구호 아래 시작되었지만 운동에 대한 비판의 대부분은 시위대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시위에 참여한 개인들은 주택문제 해소, 의료보험 개혁, 고용창출 및 실업해소,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은행규제 강화 등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음에 비해 이 시위를 주도하고 조직하는 리더쉽이나 권위가 없어서 이들의 다양한 목표가 조정되고 정리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이라는 게 더 정확한 지적이다. 이들은 온/오프라인 상에서 현재 경제 및 사회문제에 대해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목표와 해결책을 집단적으로 토론,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33) 강승한, 김명준, 「Occupy Wall Street 운동에 나타난 협력적 미디어 문화생산: 카스텔의 '정체성'과 '상징'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29(4), 2012, 9-10쪽.

서, 디지털 시대 사회운동은 탈중심성, 비위계성, 민주성, 개방성, 다양성, 확장가능성, 유연성, 비공식자치성의 원리³⁴⁾가 가능하게 작동하고 있다. 2008년 우리나라의 촛불시위도 이러한 형태의 대표적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OWS운동은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99%라는 ‘공통되기 운동’을 통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참여자들이 공통의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탈중심성, 비위계적 특성인 ‘개인 외에 그 어떤 지도자도 없는 (Leaderless)’ 운동으로 진행되었다. 특정지도부가 아닌 전체 시위대 구성원이 참가하는 회의인 뉴욕시 전체회의(New York City General Assemblies; 이하 NYCGA)³⁵⁾에서 시위의 방향과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정방식은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NYCGA에는 130개가 넘는 워킹그룹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워킹그룹은 시위대 내에서 자생적으로 구성된 실무팀들로, 시위가 지속되며 제기되는 여러 가지 필요사항들에 대해 스스로 팀을 꾸려 OWS운동을 지원하는 자발적 활동그룹이었다. 예를 들면 시위대 식사를 준비하는 키친 워킹그룹,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한 홍보와 안내를 위한 미디어워킹그룹 등이 있으며, 아카이브워킹그룹(Archives Working Group)도 이에 속한다.

2) 월가점령운동의 기록화 활동

앞서 살펴본 OWS의 네트워크 운동적 특성은 점령운동을 기록화하러

34) 이항우, 「네트워크 사회운동과 하향적 집합행동」, 『경제와 사회』, 통권 93, 2012, 248쪽.

35) OWS 운동이 리더가 딱히 없는 자율적 시위라고 하지만 중요한 사항은 매일 두 차례 열리는 점거자 전체회합(NYCGA)에서 결정된다. 운동전체를 대표하는 모임으로서 다른 점거운동과의 관계, 전체운동의 재정을 결정하는 등의 운동의 중대사안을 이 회합으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이들은 주관자였지만 ‘빈중심’으로서 조력자(facilitator)로 자처한다. 고병권, 『점거, 새로운 거버먼트-월스트리트 점거운동 르포르타주』, 그린비출판사, 2012, 69-71쪽.

는 집단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즉 기록을 소유와 통제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활동가, 이용자와의 협동을 통한 운동의 기록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것은 공유, 개방, 수평성을 주장하는 운동의 지향성을 그대로 기록학적으로 적용하려는 적극적 집단의 출현을 알리는 것이었으며, 사회정의에 대한 기록학의 실천성을 현재까지 가장 적극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크게, 점령운동의 기록화에 참여한 그룹 중 점령운동의 내부그룹으로서 아카이브 워킹그룹이 있었고, 이들과 결합하여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운동기록의 기록화에 자문과 지원을 담당한 대학중심의 기록학 집단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는 별개로 제도적 기억기관들은 당대 주요이슈 기록화에 대한 총체성의 입장에서 월가점령운동의 기록을 일부 수집하였다.

(1) 아카이브 워킹그룹

아카이브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의 결성일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9월17일 맨하탄 볼링 그린에서 첫 시위가 일어난 이후 아카이브 워킹그룹의 핵심인물이었던 제레미 볼드(Jeremy Bold)가 바로 기록을 모으는 기사³⁶⁾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시위 첫 주부터 월가점령운동 아카이빙 활동이 시작³⁷⁾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볼드는 월가점령운동의 핵심 활

36) [http://hemisphericinstitute.org/hemi/en/e-misferica-91/jez3prezaatchu] 2014.09.12 접근.

37) 워킹그룹의 해산일자 역시 명확하지 않다. NYCGA.net에 2012년 8월17일 이후 활동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즈음 활동이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까지 수집한 물리적 기록 등에 대해 Tamiment Library에 기증할 것을 확정한 시점이 8월이므로 이러한 기증 이후 워킹그룹 자체 동력은 사실상 없어지고, 일부 워킹그룹 인물들이 아카이브 자문 지원그룹과 계속 연계하여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요인물인 Anna Peticci의 경우 소개 프로필에 워킹그룹 활동을 2013년 9월까지로 설정해놓고 있고, 또 다른 핵심인물인 Amy Roberts의 경우 Occupy Wall Street Archive라는 경력에 현재까지로 되어있다. 이들의 활동으로 볼 때 운동의 계속적 보존활동이라는 측면에서는 현재까지라고 할 수는 있으나 운동 당시의 실제적 워킹그룹 활동은 2012년까지로 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가장 핵심적 인물인 Bold의 경우 OWS 활동을 2011년 7월(그 기원인 블룸

동가들이 같은해 6월 벌였던 점령운동의 전초전격인 블룸버그빌 시위부터 참여하였고 그 당시 자료까지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던 인물로 첫 주부터 아카이빙이 시작된 것은 이러한 경험의 산물이었다고 보여진다.

워킹그룹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인물들의 대부분은 문헌정보학(Library Science)이나 기록학 전공자³⁸⁾들이었으며 이들의 특징은 그들 자신이 점령자(Occupier)로서 운동에 대한 전폭적 지지와 그 정신에 기반한 아카이빙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였다는데 있다. 워킹그룹 역시 운동의 수평적 구조와 개방성을 반영한다. 페리치(A. Perricci)에 의하면, 워킹그룹의 구성은 핵심팀(Core Team), 메일링리스트에서 활동하는 사람, 직접 맨하탄 모임에 참석한 사람, 자문(Advisors), 조직(Organizations)로 구성³⁹⁾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자문, 조직에 해당되는 집단은 본고의 기록화 지원단체와 상당부분 겹친다. 논문에서 이들을 구분한 것은 워킹그룹에 포함되었다고 하나 코어팀과 자문, 조직팀간 일정한 긴장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운동 기록화와 보존방식에 대한 방향에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독립적으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노력한 코어팀과 일찍이 운영, 자원 등의 문제로 다른 방법을 모색한 자문, 지원단체를 구별하여 본고는 분석해보고자 한다.

워킹그룹은 2011년 10월 9일 총회 연설을 통해 OWS 운동기록의 수집과 아카이브의 필요성을 점령자들에게 알리고 12월 2일 OWS 아카이브 사명문을 공유하였다. 이들은 사명문을 통해 점령운동의 조직자료와 활동을 기록화 할 것을 천명하였다.

버그빌 시위부터로 생각됨)~2012년 10월로 설정하고 있다.

38) 주요인물은 Jeremy Bold(뉴욕대 문헌정보전공), Anna Perricci(미시간대 기록관리학), Amy Roberts(퀸즈컬리지 문헌정보와 기록학)이며, 이들은 워킹그룹의 해산 때까지 활발히 활동하였고, 이후 월가점령운동과 관련된 논문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39) A. Perricci, "Planning for the short and long term stewardship of Occupy Wall Street's digital records", Presentation for NYC Digital Asset Managers Meet up, 2012.11.29

“월가점령 아카이브워킹그룹은 단명자료(ephemera), 구호모음, 포스터, 시청각자료, 디지털파일 사진, 구술자료 그리고 박물을 수집한다. … 또한 점령운동의 총회와 Spokes Council의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워킹그룹의 기록을 문서화할 것이다. 이것은 월가점령운동의 투명성을 유지 보장한다. 월가점령 아카이브는 우리의 사상, 이념, 전략, 구조, 전술, 정치, 그리고 문화에 대한 문서화로 점령운동의 설명책임성을 보장하며, 이러한 방법은 뉴욕, 미국, 나아가 세계의 정치적 담론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⁴⁰⁾

이들은 3개의 범주로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첫째, 물리적 자료의 보관, 둘째 구술역사 수집, 셋째 디지털 자료의 수집과 아카이빙을 목표로 지원그룹과 연계하여 활동하였다. 워킹그룹은 물리적 자료의 보관과 관련하여 맨하탄 SIS(Supply, Inventory, and Storage)에 저장공간을 임대하여 꾸준히 기록을 수집하였으며, 온/오프기록에 대한 목록작성, 플리커 내 OWS 관련 사진 아카이빙 및 인터넷 아카이브(Internet Archive)와 연계하여 OWS 관련 페이스북 목록을 정리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활동가들의 기록생산에도 관여했는데 지원단체인 Activist Archivists와 협력하여 장기적인 동영상 사용 확인 가이드 및 파일명 표준을 수립, 미디어워킹그룹에 배포하였다. 한편 운동내부 관련 워킹그룹과 외부전문가들과 디지털 아카이빙의 필요와 방법에 대해 지속적 논의를 이어갔으며 물리적 자료 보존공간에 대한 이슈와 미래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여 운동의 지속가능한 보존 방안을 강구⁴¹⁾하였다.

워킹그룹 활동은 운동이 미래에 재현되어질 수 있는 방법과 이 작업

40) [<http://www.nycga.net/group-documents/occupy-wall-street-mission-statement/>] 2014.09.12 접근.

41) 세 개의 범주로 작업을 진행했지만, 워킹그룹 핵심멤버들은 소수인원, 자원부족 등으로 인해 물리적 자료의 수집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으며, 디지털 아카이빙은 주로 지원단체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 왜 이 운동에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보다 중요한 철학적 논의가 진행됨으로써 기존 지원그룹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들은 네트워크 운동의 성격이 반영된 아카이빙에 대해 고민하였는데, 즉, 월가점령운동의 연대원칙 중 하나인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오픈소스의 광범위한 활용을 지지하고 실천한다는 원칙에 부합한 아카이빙을 고민하였다. 이들에게 오픈 소스란 단지 소프트웨어의 개념이기보다 지적 재산권을 고집하지 않고 다수가 참여하여 공동의 창조물을 만들어가는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카이브를 독점, 배제를 비롯한 정치적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폭넓은 시민의 경험을 공유, 다양한 내러티브를 용인하고 이를 기록화 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이를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등에 실패⁴²⁾함으로써 중국에 워킹그룹과 계속적으로 협력하였던 뉴욕대 타미먼트 라이브러리(Tamiment Library)에 점령운동의 핵심 기록을 기증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워킹그룹의 공식의견은 아니었으나 주요 핵심인물이었던 볼드는 ‘아나카이브(Anarchive)’ 개념을 주창하였다. 이것은 운동의 정신을 아카이빙 원리에 그대로 구현하려는 데 있어 가장 급진적 형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아나카이브’란 운동의 아나키즘적 영향⁴³⁾의 본질을 유지하는 철학적 기반 위에 시도된 개념으로서 ‘Anarchism’과 ‘Archive’의 합성어이다. 볼드는 “만약 우리가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또다른 아카이브’도 가능하다. 이러한 도전은 직접민주주의, 개방, 오픈소스 아

42) 이들은 GA에 아카이브예산 배정 등을 요청(2011, 11월과 2012, 1월)하였으나 번번히 다른 사안에 밀려 이를 승인받지 못했다. 활동가들은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는 하였으나, 보존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했으며, 그보다 이집트 운동 지원 등에 예산을 활용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43) 기존 정치체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거부, 기존 법질서의 정당성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거부, 내적 위계만들기를 거부하고 동의에 토대를 둔 직접민주주의 형식을 창안한 것 등에서 운동에 아나키즘적 영향을 엿볼 수 있다. 고병권, 『점거, 새로운 거버먼트-월스트리트 점거운동 르포르타주』, 255-257쪽.

카이브라는 급진성을 포함한다. 이 모델을 아나카이브라 부른다”고 정의하고 있다.

아나카이브는 점령운동의 활동가, 아키비스트, 역사가의 집단적 관점을 통해 점령운동의 역사를 문서화하려는 시도로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적 재현에 대한 권한의 분배를 주장한다. 이를 관리책임지는 사람은 아나키비스트(Anarchivist)로서 이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운동유산의 분산 콜렉션을 형성하고 이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⁴⁴⁾ 슬로건인 ‘An open-sourced archive: of, by and for the People’에서 볼 수 있듯 볼드는 “소셜 미디어도구를 통하여 특정사건을 집합적으로 문서화하려는 시도이자, 다양한 사람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립적이고 분산적이지만 네트워크화된 비제도적 아카이브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나카이브의 특징은 무엇보다 운동의 내러티브를 스스로 제어하길 원하는 DIY 사고에 기반하여 다수가 참여하여 공동의 창조물을 만들고, 어떤 한기관에 보존되어 ‘박제된 기억’으로서의 아카이브가 아닌 진행중인 운동에서 지속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데 있었다.

(2) 기록화 지원단체

OWS 운동 기록화 지원단체는 워킹그룹과 결합하여 OWS 아카이빙과 관련한 자문과 자원의 장기보존과 관련한 꾸준한 활동을 보인 그룹이다. 이들은 OWS운동에 대한 지지를 배경으로 조직의 차원에서 아카이빙에 동참하였다. 주요조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4) [http://interoccupy.net/anarchives/] 2014.09.14 접근.

〈표 1〉 기록화 지원단체 현황

조직	주요 활동	비고
Activist Archivists(NYU's the Moving Image Archive Program)	-워킹그룹 지원 -점령기록의 생산조직과 협력, 디지털 아카이빙 자문, 교육 -메타데이터 획득, 정리	
NYU/ Tamiment Library (Labor & the Left)	-점령운동 주요조직 웨카카이빙 -워킹그룹 수집기록 기증받음 -워킹그룹 지원	
Queen's Collage Special Collection & Archive	-구술기록, 물리적기록 수집 -참여아카이브 웹사이트 구축	-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수행
Emory Libraries Digital Scholarship Commoms(DISC)	-점령자의 트위터 수집	-지원그룹과 연관성은 파악되지 않음
George Mason University Roy Rosenzweig Center	-오픈소스 OMEKA를 이용한 OWS Archive	-Activist Archivist와 협력
Internet Archive	-디지털 자료 보존	-Activist Archivist와 협력
Witness	-미디어 아카이빙 조언 -인권보호 소프트웨어 조언	-Activist Archivist와 협력

주로 대학과 비영리단체 위주로 구성된 이들은 디지털 아카이빙, 물리적 자료의 수집, 구술프로젝트, 생산자에 대한 교육과 표준 제공 등 다방면에서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같은 활동은 각 조직이 개별적으로 수행했다기보다 워킹그룹과 협력적으로 진행하였는데, 주로 Activist Archivists가 사안에 따라 인터넷 아카이브와 로이 로젠웨이그센터, 워트니스 등과 협력하여 디지털 아카이빙 및 오픈소스를 이용한 아카이브 구축, 인권보호 및 저작권한 보호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고, 타미먼트 라이브러리는 워킹그룹과 초기부터 결합하여 자원 지원과 점령운동 주요조직 아카이빙 등을 담당하였다.

Activist Archivists⁴⁵⁾는 2011년 10월 월가점령운동 당시 뉴욕대 MIAP(the Moving Image Archive Program)의 베서(Howard Besser) 교수를 중심으로

45) [http://activist-archivists.org/wp/] 2014.09.14 접근.

월가점령운동의 기록화를 지원하는 그룹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미디어 아카이비스트 및 학계 집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사회운동의 유산으로서 기록의 보존 문제 등에 도움을 제공하고, 특히 미디어 제작자의 권리와 의도를 존중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중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역시 운동의 정신을 기본 바탕으로 한 아카이빙 방식을 추진하였다. 기본적으로 특정 저장소에 자신의 자료가 제공되거나 운동의 서사가 독점적으로 정리되고 제어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는 운동 참가자들에게 CCL(Creative Commons License)를 교육, 홍보함으로써 점령운동의 개방과 공유 원칙에 입각한 자료의 자기결정권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로이 로젠웨이그 센터의 웹 전시출판 관련 공개 프로그램인 OMEKA를 이용한 오픈소스 아카이브의 구축 및 점령운동의 정서적 특징을 가장 잘 포착하고 있는 디지털 자료의 수집, 보존협력⁴⁶⁾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한편 기록의 생산단계부터 활동가와 결합하여 보다 양질의 아카이빙이 될 수 있도록 도모하였는데, 기록보존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운동의 가치체계를 사용하여 설명한 홍보물⁴⁷⁾, 각종 동영상, 오디오 관련 보존 사용 팁, 표준 파일명 정립, 행위의 설명체계인 메타데이터의 손실 없는 추출 등 운동 기록화의 중요부분을 담당하였다. 또한 아카이비스트에

46) Internet Archive가 개발한 웹상의 문화유산의 수집, 액세스 및 보관서비스 사이트인 Archive-It에 점령운동의 웹자료 수집 협력과 Tamiment Library와의 웹 아카이빙 협력 등을 말한다. Archive-It에 보관된 자료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https://www.archive-it.org/collections/2950?fc=websiteGroup%3ANews+Sites+and+Articles] 2014.09.16 접근.

47) "Why archive?"는 점령자들에게 배포한 엽서 크기의 캠페인성 자료로 설명책임(account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 교육(education), 연속성(continuity)의 제공이라는 키워드로 활동가 자신이 기록을 남겨야 할 이유에 대해 핵심적으로 정리하여, 점령운동 기록화의 정당성과 보존을 촉구하였다.

의해 수집된 자료가 시위대에 대한 법적 조치에 사용될 수 있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위트니스와 연계하여 자동으로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 Obscuracam을 도입하도록 권장하였다.

워킹그룹이 기증자로 선정한 타미먼트 라이브러리는 급진적 정치, 사회운동의 역사 및 노동투쟁과 관련한 좌파운동의 역사를 수집 보존하는 도서관으로, 운동의 초기부터 운동 주요조직의 회합에 대한 오디오 파일 보존과 워킹그룹에 스토리지 등의 자원조달 및 자문을 꾸준히 해오던 조직이었다. 워킹그룹은 자신들이 계획한 기록보존이 용이하지 않게 된 이후 운동의 주요 조직의 웹아카이빙(GA, Think Tank Group 등)과 물리적 자료를 타미먼트 라이브러리에 기증하였는데, 워킹그룹은 컬렉션 처리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기증조건으로 하였으며, 웹아카이빙은 현재까지도 일부가 계속 업데이트됨으로써, OWS운동의 내러티브를 지속적으로 기록화⁴⁸⁾하고 있다.

(3) 제도적 기억기관

점령운동은 기존 제도적 기억기관에서도 중요한 관심사였다. 뉴욕공공도서관, 뉴욕역사협회, 스미소니언 계열 미국역사박물관 등에서도 발빠르게 점령운동에 대한 기록 수집을 시작하였다. 이들의 특징은 주로 포스터, 전단지, 구호모음, 뱃지 등 물리적 운동기록의 수집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점령운동은 아이디어부터 블로그 포스트로 시작되었고 익명의 인터넷 그룹들이 네티즌의 참여를 촉진하였다. 점령운동 페이스북 페이지는 초기 시위 연대기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시위자들은 소셜 미디어채널을 통해 동원되고 셀 수없이 많은 사진, 동영상, 댓글, 트윗이 점령운동의 정서적인 특색을 담아내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볼 때

48) 타미먼트 라이브러리에 보관된 OWS 웹아카이빙 관련 자료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http://dlib.nyu.edu/findingaids/html/tamwag/tam_599/dsref133.html] 2014.09.16 접근.

점령운동은 디지털 방식으로 추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제도적 기억기관은 운동의 산발적인 물리적 자료의 일부만 수집한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여 수집하고 있다는 풍문이 돌았고 워킹그룹 소속 인물과 작은 충돌까지 빚어지며 그들이 이름붙인 ‘악당 아키비스트(The Rogue Archivist)’ 대치와 관련된 사안이 워킹그룹 내 의제가 되기도 하였다.⁴⁹⁾ 워킹그룹이 물리적 수집에 치중한 것은 디지털 아카이빙 등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도 한 이유였지만, 점령자들에게 “쓰레기”로 취급받는 구호모음이나 전단지 등을 ‘이 시기’에 수집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들은 이 자료의 맥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점에서 제도적 기억기관의 출발은 다르다. 그들은 동시대 중요사건의 총체적 수집이라는 관점에서 점령운동에 접근하였고, 일부 자료의 수집으로 기관 보존소에 컬렉션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에 만족하였다.

이들은 이 운동의 자료가 귀중한 역사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운동이 역사화 되는 시기까지 논의하기를 꺼려하였으며, 언론을 통해 “수집에 대한 보도자료 외에 기관 스태프가 기록관리 과정(archival process)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⁵⁰⁾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점은 자칫 원출처와 운동에 대한 의미와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탈맥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3년 4월 스미소니언에 수집된 월가점령 포스터에 대한 전시회⁵¹⁾가 열렸다. 우리는 Ivan Karp의 말을 새겨볼 필요가 있다.

“전시는 정체성을 재현하며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루된 것이다.

49) [<http://www.theawl.com/2011/12/the-struggle-for-the-occupy-wall-street-archives>] 2014.09.16 접근.

50) [<http://thebrooklynink.com/2011/12/26/39230-the-anarchivists-who-owns-the-occupy-wall-street-narrative/>] 2014.09.16 접근.

51) [<http://actipedia.org/project/smithsonian-collection-occupy-wall-street-posters-view-we-sleyan>] 2014.09.16 접근.

전시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⁵²⁾

4. 월가점령운동을 통해 본 기록학 실천주의의 함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키비즘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된 개념이다. 유력한 소수세력의 이해만 대변한다는 외부적 비판과 자성에서 출발한 실천주의는 대다수 사회구성원들의 기록을 보존하여 사회에 대한 좀더 완전한 기록전통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여기에는 비주류에 대한 공평한 기록화를 표방하면서도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체로 포괄하는 통합적 전체화를 지향한 것이다.⁵³⁾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기록학 실천주의는 좀더 적극적인 형태로 변모하게 된다. 사회구조적 질서의 일부로 제도화된 아카이브에 대한 비판적 성찰 속에 기존 통합적 전체화 속의 소수라는 존재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서사가 공존할 수 있는 지향과 방법을 고민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 활동가-아키비스트의 경계를 허물고 정치적·사회적 의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공동체와 더불어 자주적 아카이빙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를 모색하고 있다.

점령운동 아카이빙의 사례는 이러한 기록학 실천주의의 과거·현재·미래의 모습이 모두 투영되어 있다. 제도적 기억기관의 아카이빙의 접근방식은 대상화된 보존기록의 공평성, 균형성의 추구를 목적으로 삼았다. 이들이 언론에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

52) Katie Shilton and Ramesh Srinivasan, “Participatory Appraisal and Arrangement for Multicultural Archival Collections”, pp.89-90.

53) 이승억, 「경계밖의 수용 : 보존기록학과 포스트모더니즘」, 『기록학연구』, 38, 한국기록학회, 215쪽.

“스미소니언박물관 계열의 미국역사박물관은 미국 민주주의 정신을 시민들이 정치 집회, 데모와 시위를 통해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미국 정치과정을 문서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 최근 월가점령 시위 현장에 대리인(representatives)을 파견하여 시위대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 박물관은 오바마/맥케인 대통령 선거, 2010년 3월 티파티(Tea Party) 시위, 2011년 2월 미국보수연합의 CPAC(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3월 위스콘신주 의사당 시위 등을 수집하였다.”⁵⁴⁾

이 성명서에 의하면 이들은 미국 정치역사컬렉션의 하나로 점령운동을 수집하고 있다. 미국역사박물관이라는 기관의 사명상 이들은 동시대 역사상의 다양한 수집에 초점을 맞추고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수집 정책을 표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주류를 포괄하는 통합적 전체화의 관점에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며, 아카이브가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신념의 지속으로 보여진다. 동시대 역사적 사건의 경험 속에서도 이를 기록화 하기 위한 아키비스트나 아카이브는 보편적 이해를 추구하는 기준이나 절차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일 것이다. 이것은 제도적 기억기관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자 장점이다. 제도적 기억기관의 기록관리 전문화, 합리화, 체계화의 이면에 배제의 권력작용, 즉 기관 전체 기록의 일관된 방향속에 위배되는 기록의 지속적 배제가능성, 그에 따른 탈맥락화는 대리인을 통한 단편적 수집이라는 OWS운동 사례에도 보여지는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류 기억기관에 활동가들이 그들의 기억을 맡기려 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54) [http://americanhistory.si.edu/press/releases/statement-occupy-wall-street-protests-coll
ecting] 2014.09.16 접근.

반면, 기록화 지원그룹은 자본주의 체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항의의 상징인 점령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고, 활동가이자 아키비스트로서 아카이빙에 다방면으로 활동하였다. 앞서 주로 소개한 지원그룹의 두 조직 외에 운동의 물리적 자료와 구술 등의 기록화에 힘썼던 퀸즈 대학은 점령운동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명과 콜렉션 개발방침을 천명하였다.

“... Queen’s Collage archiving project의 목표는 (점령)운동의 흔적을 보존하기 위한 많은 공간 중 하나를 제공하는 것이다. ... 우리는 이 컬렉션 개발의 접근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우리는 실천적 아키비스트를 아카이빙 하는 운동의 능동적 참여자로 규정한다. 그들의 목적이 아카이빙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든, 참여의 산물로 자료가 수집되는 것이든, 실천적 아키비즘은 운동에의 직접적 참여를 의미한다.

... 우리는 99%이며 아카이브에서 살아있는 운동의 이념을 유지하기 위해 싸울 것이다. 저작권은 원래의 소유자에 의해 유지되거나 가공하여 CCL을 부여할 수 있다. 우리는 점령역사를 보존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그룹이나 개인을 지원하고자 한다.”⁵⁵⁾

이들은 철저하게 점령운동의 지향성을 바탕으로 아카이빙을 기획하고 설계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참여아카이브의 특징인 분산관리, 철저한 이용자 지향성, 광범위한 맥락화라는 측면을 사명과 콜렉션 개발방침에 명시해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 아키비스트가 운동에 공감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의미부여를 콜렉션 개발의 접근방식으로 천명하였다. 이와 같은 선언은 90년대 이후 아키비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며, 평가선별 결과로 도달

55) [http://dhalab.org/qcoccupy/page/index/1] 2014.09.16 접근.

하게 될 도큐멘테이션 자체보다는 그러한 도큐멘테이션을 형성시킨 상대적 근거와 과정에 주목⁵⁶⁾하는 것이다.

기록화 지원단체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만 앞서 살펴본 주류 기억 기관과는 달리 대학이라는 좀더 운신의 폭이 넓은 공간에서 활동한다는 특성이 있다. 학문의 자유를 기본이념으로 창조적, 비판적 연구와 사회봉사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대학의 기본 사명에 부합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사회정의에 투영하고자 하는 이들의 활동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사건에 기록학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현재 아키비즘이 OWS 기록화 지원그룹이 보여준 아카이브의 장기보존 책임과 기록전문직의 진보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워킹그룹의 핵심멤버가 주장한 아나카이브(Anarchive) 개념은 기존의 아키비즘에 한발 더 나아가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워킹그룹은 최우선적으로 진행중인 운동의 지속적인 내러티브를 생성, 해석, 관리할 수 있는 독립적 아카이브를 지향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워킹그룹 멤버는 대안으로서 진보적 아카이브에 기증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아나카이브 주창자 볼드의 경우 본인이 수집했던 모든 자료를 타임머트 라이브러리에 기증하였지만, 그는 그것을 '화석과 같은 존재'로 취급하였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행중인 운동에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네트워크화된 비제도적 아카이브에 대한 추진이었다. 그의 개념은 사실 여러 사람의 동의를 얻기에는 너무 추상적이다.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자립적이고 분산적 온라인 관계망 아카이브들이 아나키비스트들에 의해 관리되면서 생산자와 이용자와의 협력을 통해 수집물이 목록화되고 활용되어지도록 하는 것, 그 가운데 운동의 내러티브가 계속

56) 이승억, 「경계밖의 수용 : 보존기록학과 포스트모더니즘」, 『기록학연구』, 38, 한국기록학회, 217쪽.

이어지고 새롭게 재해석되어 운동의 의미를 살려가는 것이 그의 목표이다. 이것은 OWS 운동을 승계하는 또 다른 대안운동 속에서도 그 본질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며 끊임없는 의미의 재구축 과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아카이브 개념은 한편으로 OWS운동에 대한 일각의 비판인 ‘개별 지도부의 부재 속에서도 운동 지도력은 필요하다’는 역설을 되새김해 볼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운동 속성에 대한 이 같은 딜레마는 아카이브의 탈중심적이고 분산적 양상에도 책임질 수 있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봐야 할 역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아카이브’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사회적인 의미 형성의 장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아카이브에 대한 근본적인 방식의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아키비즘은 아카이브가 ‘타자의 수용’이라는 문제의식을 해결해 나가 고자 하면서 시작된 개념이다. 초기에 이러한 타자의 수용은 기록보존소에 수집 보존되는 기록의 ‘격차’를 줄여가야 한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한 아키비스트의 일방적 호명에 의해 보존소에 자리매김되는 대상으로만 존재하였다. 그러나 점령운동 운동 속의 네트워크화된 사회적 타자는 기존의 소외, 배제대상 속의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일방적으로 호명되는 타자가 아니라 대화하는 타자로, 권위적인 타자가 아니라 평등한 타자가 되었고, 타자에 대한 두려움보다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다원주의 문화⁵⁷⁾로 자리잡게 되었다.

57) 강승한 김명준, 「Occupy Wall Street 운동에 나타난 협력적 미디어 문화생산: 카

이러한 변화상은 현재 아키비즘이 어떻게 타자를 맞이해야 하는가에 대한 과제를 안겨준다. 이미 앞서 살펴본 OWS운동 아카이빙을 수행한 세 그룹의 활동을 통해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것을 Archival Stewardship⁵⁸⁾의 실현으로 보고 있다. Archival Stewardship이란, “공동체의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권을 존중하여 그들이 자신의 기록을 획득하여 관리하도록 과정을 설계, 조정하고 내러티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더 나아가 이러한 활동으로 사회의 공공선을 유지하는데 공헌하는 것”이다. 오늘날 아키비스트의 역할과 관련하여 “공동체 조력자(Community Facilitator)”라고 한 쿡의 주장⁵⁹⁾과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아키비즘을 염려하는 측은 지나치게 정치화된 목표가 그것을 목적으로 한 기록만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와 다른 편에서 있는 증거자를 잃을 가능성을 얘기한다.⁶⁰⁾ 그러나 공정한 것이 곧 중립적인 것은 아니듯, 아카이브의 다양성 확보는 어느 부분에서는 당파성이 드러나는 선명한 기록화를 통해 오히려 편향을 줄일 수 있다.

기록학계 모두가 사회정의의 실현에 나설 수는 없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 과정에서의 성찰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 즉 동시대 사

스텔의 ‘정체성’과 ‘상징’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9(4),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13-14쪽.

58) 스투어드십은 리더십이론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책무관리로 정의되기도 하고 업무의 클라이언트와 파트너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봉사하는 행위를 뜻한다. 실천주의와 관련된 논문에 종종 스투어드십이란 단어를 발견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다. 따라서 리더십이론과 아카이브의 책무를 고려한 정의를 필자가 간단히 정의하였다.

59) Terry Cook, “Evidence, memory, identity, and community: four shifting archival paradigms”. *archival science*, Vol.13, 2013, pp.113-116.

60) Mark Greene, “A Critique of Social Justice as an Archival Imperative: What Is It We’re Doing That’s All That Important?”, pp.310-313.

건을 경험하고 관련된 이들을 이해하고 설명책임성 있게 아카이빙해 나갈 수 있는 반성적 성찰인(reflective practitioner)으로서 기록전문직의 역할에 대해 우리 기록학계는 고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ABSTRACT

The Prospects and Challenges of Archival Activism : Focusing on the Documentation Case of Occupy Wall Street Movement

Lee, Hyun-Jeong

Recently in the field of archival science, a variety of documentation issues about community, everyday life, political and social movement and human rights are under discussion focusing on minorities' documentation and implementation of social justice. Those issues are especially focused on documentation about minorities and implementation of social justice. These Archival Activism is evolved from academic and social influence since the late 1960s rather than recent changes. The recent Archival Activism is under way in various fields and forms that encompasses both aspects of the mainstream/fringe groups over the world beyond organizations and areas. 4.16 disaster put archival community in Korea many challenges. Now is the time to approach with reflections on records of evidence and heal. This study seeks contemporary documentation's assignments through the documentation case of Occupy Wall Street Movement. Firstly, it examines on concept of Archival Activism, origins, and developments. And Based on the documentation case of Occupy Wall Street Movement, it investigates a role of the archival profession carrying out Archival Activism.

Key words : Archival Activism, Social Justice, Activist Archivist, Occupy Wall Street Movement